

## ESG 대학 연합, 첫발을 내딛다

ESG 대학 연합 MOU 및 정기이사회 진행



▶대학 연합 발대식 개최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지난 22일, 센텀캠퍼스에서 ESG 대학 연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 협약 체결 및 정기이사회를 진행했다.

ESG 지배구조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날 LINC 3.0 사업단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남권 동서대, 경남대 ▲수도권 동국대 ▲충청권 대전대 ▲호남·제주권 제주대, 호남대 ▲대경·강원권 계명대, 한림대 간의 'LINC 3.0 ESG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ESG 대학 연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ESG 기반 산학협력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운영 ▲ESG 기반 대학 인프라, 아이디어 공유 및 우수 사례 청출을 위한 협업 ▲ESG 관련 기업 연계 교육 과정 참여 기업 및 학생 연계 ▲대학

간 ICC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프로그램 ▲지역별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 기반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SG 대학 연합은 지역사회공헌연구회가 ESG 관련 산학협력을 위해 만든 전국 LINC 3.0 사업단 협의체로, 2017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캡스톤디자인페어 8회, 아이디어톤 5회, 연구회 세미나 25회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ESG 대학 연합 첫 협업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초에 개최하는 ESG 페스티벌이며, ESG 캡스톤디자인페어, ESG 아이디어톤, ESG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공유 협업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동서대 LINC 3.0 사업단이 ESG 대학 연합을 통해서 산학연 공유 협업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주요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기후 변화가 언급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며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직 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미래정책연구실은 'ESG 경영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KASFO BRIEF>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ESG 경영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므로 ESG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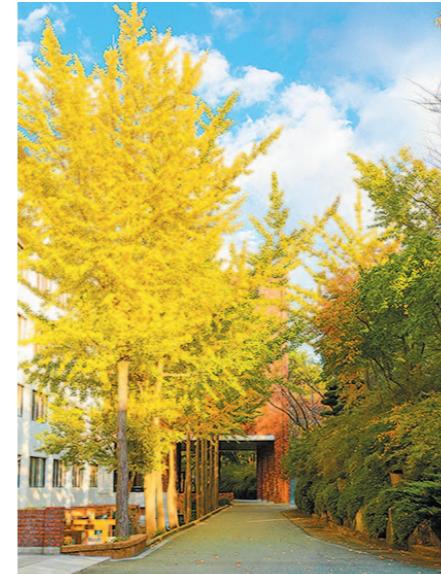
작년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원하는 ESG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8월에는 <기후위기 시대, ES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센텀캠퍼스에서 2022 ESG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ESG 이해 바로잡기 ▲유럽 그린딜을 위한 분류법의 역할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기후 변화에 놀란 소비자가 바라는 ESG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의를 위해 브리운대학교 캐리 크로스킨스키(Cary Kroosinsky) 교수, 유럽 위원회(ERCST) 선임정책관 바텍 저스키(Bartek Czyczerski) 등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우리 대학은 이처럼 ESG 지배구조 아래 대학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우리 대학 전경



## AI 트렌드가 한곳에 모이다

'AI KOREA 2022' 서 다양한 기술 및 성과 전시



▶AI KOREA 2022 행사장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종합 전시회 'AI KOREA 2022'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AI,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기관과 ▲메타버스와 ▲AI 교육관 ▲블록체인관 ▲세미나관으로 구성돼 각 관람실마다 주제에 맞는 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AI 교육관에서는 AI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AI 기술관에서는 로봇·가전 등 다양한 AI 제품 등의 전시물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또 부산 AI 특별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부산 전략 사업 연계 AI 기술 및 제품도 함께 전시했다. 블록체인관에서는 블록체인 특수 연계 등을 전시했고, 메타버스관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스타트업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을 시연하고 배우자들에게 조명했다.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은 전시회에 출석체인 다양한 AI 연구 및 프로젝트, VR, 빅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물을 전시 및 시연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4차산업 시대 혁신 기술, 캡스톤 디자인 성과물, 학부 연구생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AI+X 연구소, SW융합연계전공 등을 선보였다.

특히 SW융합연계전공의 대표적 성과인 'AI 가장 아이돌 프로젝트'는 쿠아이에이 텁과 공연 및 웨드러미 활용 계약까지 성사시켰다. 메타버스 FPS 게임과 VR 게임 프로젝트는 행사장 내에서 전문가 및 학생 등의 참가자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장 문미경 교수는 "우리 동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부스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관람객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의 전공 분야, 융합 연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 나아가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의 훌륭한 결과물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손잡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와 MOU 체결



▶상호 협력 협약서 체결



▶일본연구센터 사업 내용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외교디비전 12층 KNDA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 대학 측에서는 장재국 총장, 신정화 일본연구센터소장이 서명했으며, 국립외교원 측에서는 흥현이 국립외교원장, 조양현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가 서명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의 일본 관련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각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관련 학술 회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각종 연구 및 행사에 상호 조성 및 인사 교류 활성화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정보 및 정기간행

물 등의 자료 제공

협약서 체결 후 양 기관은 협력 취지에 따라 '운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특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운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하며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장재국 총장과 신정화 소장이, 국립외교원에서는 흥현이 원장과 조양현 책임교수가 참석했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장재국 총장과 신정화 소장,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일국 국립외교원 부교수의 지정 토론 및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패널 외에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용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유지선·이광희·김미정·조아라 연구원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장재국 총장과 신정화 소장이, 국립외교원에서는 흥현이 원장과 조양현 책임교수가 참석했다.

회의에는 패널 외에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용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유지선·이광희·김미정·조아라 연구원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는 2003년 9월 설립돼 부산을 거점으로 두고 일본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 및 양국 사이 다양한 학교·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공동 연구'라는 토론 테마 아래에 제1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교정상회 50주년을 맞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 온 지난 50년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조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위해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위해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국교정상회 50주년을 맞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 온 지난 50년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조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위해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위해 우리 대학 일본연구센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비타500 광고 스틸컷

우리 대학과 기장군이 협업해 운영 중인 에버그린 영화대학 및 에이전시 소속 배우 16명이 광동제약 비타500 TV 광고에 출연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니어 배우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친 배우들이 비타500과 함께 힘찬 미래를 그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들은 비타500을 손에 쥐고 "에버그린 파이팅, 비타500 파이팅"을 외쳤다.

연출을 맡은 일권영화예술대학 오세준 교수는 "정훈 못지 않게 다부진 시니어 얼짱을 영상에 자연스레 녹이고자 했다. 에버그린 영화대학의 교육을 받은 시니어 배우들의 표현력이 매번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시니어 배우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버그린은 이번 광고를 포함해 2년 연속 소속 배우를 TV에 출연시키며 에버그린 영화대학 및 에이전시의 순항을 증명했다. 작년에는 쇼트 코미디 '나부터 첼린지'를 제작해 상영해 왔다.

작년에는 쇼트 코미디 '나부터 첼린지'를 제작해 상영해 왔다. '나부터 첼린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광고로, 해당 광고에서 김준태

배우는 학교 방역에 힘쓰는 교장 선생님 역을, 이해순 배우는 코로나19를 지켜보는 시민 역을 맡았다.

에버그린 영화대학은 '시니어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두고 시니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켜 건강과 빈곤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에버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기·노래·춤 등을 교육하고, 배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시니어 배우 양성 학교다.

에버그린은 이번 광고를 통해 에버그린 영화대학 및 에이전시에 소속 배우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2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 성경 암송대회 개최!

건학이념 실천과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



▶대학교회 전경



▶기도

▶사진출처 : 테오 블로그

우리 대학은 민석(民石) 장성만 박사 내외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해 설립한 대학이다.

우리 대학은 균형적으로 기존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만들어갈 미래형 대학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즉 자기만의 달란트를 발굴하고 제대로 키워주기 위해 정형화된 틀을 깨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한다. 우리 대학은 저비용·고효율 교육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영화감독형 교수 시스템'을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교수가 특정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을 섭외해 특강 위주의 수업을 한 뒤 학기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아시아연합대학(AAU)을 제시했다. AAU는 2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접속해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자국의 협력 대학에서 대면 수업받는 방식이다. 3학년이 되면 우리 대학으로 유학을 와 2년간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 국내 외 전례가 없는 방식이다. 우리 대학은 기존의 틀을 깨 새로운 교육방식을 제시하며, 학생们에게 개인의 달란트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

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1학년에서 3학년 교육과정에 체플 교과목을 편성해 체플 수업을 통해 건축이념 구현을 위한 구원의 도리, 자아 발견과 인격 성숙, 바람직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유통바른 세계관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영역을 체플을 통해 배우도록 수업을 편성했다.

한편,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함께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성경 암송대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체워 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성경 암송의 목적은 나침반과 같다. 어떤 일을 할 때 내면의 움직이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며 말한다. 예수님은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받았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이었다. 따라

서 제자 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 암송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첫걸음을 성경 암송에 두었다. 한복을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한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꽃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결실해 흑백 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머리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을 새길 때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다면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 암송대회는 시편 90편을 범위로 한다.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밝히면서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prayer psalm)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와 아울러, 이스라엘의 국가적 심판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비탄 시다. 시편 90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시기 바라는 간구와 함께 인간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성경 암송대회를 주최하는 교목실의 최민구 교목실장은 시편 90편을 선정한 이유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경험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중립적인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자는 거죠. 내 나이 80-90세간 시간은 영원에 비교하자면 점에 불과한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편 90편을 암송해보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해 객관화도 해보고, 더 나아가 '잡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90편을 선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시편 90편 암송을 통해 인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 통한 발전을 바랐다.

성경 암송대회는 11월 07일(월)에서 12월 02일(금) 17시까지 접수하며, 12월 07일(목) 13시에 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12월 20일(월) 15시에 실시한다.

▶사진출처 : pixabay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비탄 시다. 시편 90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시기 바라는 간구와 함께 인간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성경 암송대회를 주최하는 교목실의 최민구 교목실장은 시편 90편을 선정한 이유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경험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중립적인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자는 거죠. 내 나이 80-90세간 시간은 영원에 비교하자면 점에 불과한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편 90편을 암송해보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해 객관화도 해보고, 더 나아가 '잡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90편을 선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시편 90편 암송을 통해 인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 통한 발전을 바랐다.

성경 암송대회는 11월 07일(월)에서 12월 02일(금) 17시까지 접수하며, 12월 07일(목) 13시에 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12월 20일(월) 15시에 실시한다.

주태연 기자  
jootaeyon@gmail.com

## 영상애니메이션학과의 금빛 향연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4년 연속 수상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수상 모습

우리 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에서 대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1팀)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8일 대전 e 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는 한국 시각효과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해 작품 제작에 기여한 우수한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는 아마추어와 협업에 활동하는 VFX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전국 최대의 공모전으로 본선에 오른 작품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수상 작품이 정해졌다.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성은 학문 분야별로 특수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또는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 실무 능력 및 발표 능력을 향상하고, 팀워크 능력을 제고하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중 모듈형 캡스톤디자인은 학과별 특성에 반영된 PBL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과에서 자체 운영한다.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대상을 받은 '겟백'은 지구가 멀쩡하고 살아남은 과학자와 그 개발한 로봇의 우정과 젊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짧은 영상 속에 학제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뛰어난 영상미와 사실적인 시각효과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올해 가장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표현과 연출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작품들은 우리 대학의 LINC3.0 모듈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서 진행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캡스톤디자인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체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제작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성은 학문 분야별로 특수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또는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 실무 능력 및 발표 능력을 향상하고, 팀워크 능력을 제고하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중 모듈형 캡스톤디자인은 학과별 특성에 반영된 PBL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과에서 자체 운영한다.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대상을 받은 '겟백'은 지구가 멀쩡하고 살아남은 과학자와 그 개발한 로봇의 우정과 젊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짧은 영상 속에 학제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뛰어난 영상미와 사실적인 시각효과가 돋

보이는 작품이며, 올해 가장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표현과 연출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중 모듈형 캡스톤디자인은 학과별 특

##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합회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기부금 전달식

(사)부산걷는길연합 -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 기부금 기탁식

◆일자: 2022년 10월 7일(금) 10:30

◆장소: 동서대학교 천자정관 210호

◆주관: (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후원: 미래커리어대학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생들과 함께 부산 걷길 모금 운동을 펼친 학생들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은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우리 대학 학생들 또한 함께하고 있다. 지역의 길이라는 자산과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연구 활동과 포럼을 열고 있으며, 다양한 길 걷기 프로그램과 각종 도심지역의 테마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부산 걷는길연합회는 부산의 길을 위한 시민단체다.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의 길이라는 자산과 가치를 재발견해 부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내가 걷고 이웃과 함께 걸으면 저탄소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 걷는길연합회는 길과 걷기의 종간 매체 역할을 한다.

부산 걷는길연합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걸는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들과 함께 실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걸으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길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찾아 길의 관리에 반영한다. 또한, 길 걷기 조직을 통해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우리 대학 학생들 또한 함께하고 있다. 지역의 길이라는 자산과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연구 활동과 포럼을 열고 있으며, 다양한 길 걷기 프로그램과 각종 도심지역의 테마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부산 걷는길연합회는 ▲부산 걷길관광 지원과 공동 연구 ▲시민참여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운영 ▲세계경기총회(WTC) 유치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 등 부산 도보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부산 걷길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주태연 기자

jootaeyon@gmail.com

## 태극마크로 향하는 금빛 활시위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 대학부 60m 금메달



▶활시위를 당기는 박세은 학생



▶우리 대학의 양궁 선수들

▶사진출처 : 테오 블로그

학년 때 슬립프가 찾아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았지만 무거운 슬립프를 이겨내고, 고등학교 3학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 60m 은메달을 차지하였다는 취지에서 양궁부에서 출전시켰다.

우리 대학 체육학과 3학년 박세은 학생은 지난 8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 대학부 60m 종목에서 346점을 쏘 341점에 그친 안산(광주여대)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대학 양궁부 박미란 선수가 대학부 70m에서 334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받았으며, 5년 만에 얻은 새로운 결실이다.

박세은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단체종합 ▲30m ▲50m ▲60m ▲70m ▲개인전 ▲단체전 등 총 8종목에 출전해 60m에서 금메달을 끌었다. 11일 열린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16강에서 탈락했다.

박세은 학생은 광주 문수문체학교 4학년 때 체계 조건이 좋지 않은 양궁을 시작한 후, 광주 체중, 체고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2

학년 때 슬립프가 찾아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았지만 무거운 슬립프를 이겨내고, 고등학교 3학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 60m 은메달을 차지하였다는 취지에서 양궁부에서 출전시켰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국 남녀 종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3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박세은 학생과 안산 선수를 꾸며 금메달을 따냈다. 박세은 학생은 운동과 양궁을 병행해 뛰어난 운동성과를 보였지만, 저녁이면 학교에 가 공부하는 자신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선배들과 힘에 방해가 될까 노심초사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욕심을 반대로 박세은이 금메달, 안산이 은메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세은 학생은 올해 2022년 초, 광주시청을 나와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고, 원하던 공부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박세은 학생은 평소에는 500~700발, 그 이후에는 1,000발의 활을 쏜다고 한다. 2021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얻은 김제덕 또한 매일 700~1,000발의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의 인터뷰에서는 하루에 1,000발을 쏘려면 아침 8시부터 밤 10~12시까지 활을 쏘야 1,000발을 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세은 학생의 금메달은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져온 자신의 운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번 결승전은 박세은 학생에게 노력의 결과물이자 저희의 중간이다. 광주체육과 체고 동창인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를 꾸며 금메달을 따냈다. 박세은 학생과 안산은 어릴 때부터 리아벌 구도를 형성했다.

# 미래 스타트업도 동서인이 이끈다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v603팀



▶v603팀 발표 현장

지난 9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8회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회에는 우리 대학의 창업팀 'v603'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및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학교가 주관하며, 한국남부발전이 후원한 청년 창업문화 확산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행사다.

지난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총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550여 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인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고, 오프라인 발표자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참가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67개 팀, 205명의 부산지역 고등학생과 전국 대학생이 참가해 서류 심사와 예선 심사를 거쳤다. 심사 위원의 심사숙고 과정에 최종적으로 고등부 2개 팀, 대학부 8개 팀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이날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에게는 발표 기술 향상을 위한 실전피칭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기회도 제공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의료폐기물 스마트 관리시스템 아이디어로 참가한 '크론'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총 3팀이 수상했다. 그중 우리 대학 학생이 선보인 ▲'v603팀'의 폐마스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 활용 및 폐마스크 인공지능(AI) 인식 로봇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 외에도 ▲'PlayGround' 팀의 스마트웨어 활용, 균전도 데이터 기반 PT 솔루션 '닥터피티' 아이디어 ▲'바이에이스트팀'의 내구성이 강한 소방호스 업사이클링 반려동물 장난감 아이디어가 있다.

우수상은 ▲'왓샵' 팀의 세균백색, 온나노실리콘 마우스케이스 아이디어 ▲'페지니스팀'의 고양이 화장실 모래 을 캐어 서비스 아이디어 ▲'창진동 꿀벌단' 팀의 수소 항공기용 분리형 꿀벌부 포드 아이디어로 3팀이 수상한 바 있다.

장려상은 다음과 같다. ▲'Meta Ocean' 팀의 대체 불가 토큰(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3D 그래픽 디자인 2차 저작권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 ▲'인센션' 팀의 전동차 사고 대처를 위한 자동 비상 시다리와 작업

시킨 결과물로, 이번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대학에서 11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v603팀(대표 : 주태연·건축 공학과 3학년)팀이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v603팀은 폐마스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 활용 및 폐마스크 AI 인식 로봇 아이디어를 선보여 심사위원들과 청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수상한 10개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부산시의 창업 지원사업에 응모하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됐다.

박진석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창업 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미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v603팀은 우리 대학의 LINC3.0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단의 실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아이팀 멘토링과 발표 자료 고도화 등을 통해 구체화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일본 파견!

2022학년도 2학기 '일본 SAP+' 출국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는 학생들



▶일본경제대학에 도착한 학생들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일본 Study Abroad Program+(SAP+)가 2022년 2학기, 다시 재개됐다.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SAP는 유학이나 해외연수의 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소재한 해외캠퍼스 및 자매대학에서 외국어는 물론 현지 문화 체험과 전공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일본 SAP+가 신설된 이후, 일본경제대학 후쿠오카 캠퍼스에 30명 안팎의 학생들을 파견해 대학의 경제적 지원 속에서 학업과 일본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재개된 일본 SAP+는 일본어·집중 학습 및 일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해온 일본 Study Abroad Program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의 일본어·집중 학습 및 일본문화체험은 물론, 글로벌창업특구로서의 후쿠오카지역 이해를 위한 현지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귀국 후에는 창업 콘테스트를 열어, 연수기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여전히 비장해졌다. 겨우 4개월인데, 부담 없이 다녀오라는 말들을 감사히 안고서 공항에 도착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막혀있던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고, 그 과정에 내가 있다는 게 새삼 설 다. SAP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부산, 한국을 넘어 타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한 학기 동안 학교(동서대학교)의 일반 교육과정을 벗어난다는 점에 걱정과 불안도 느꼈으나 아직 대학생이니까 눈앞의 기회를 따라가는 마음도 있었다. 일단 도전이다. 아직 대학생이니까. 모두가 그렇듯 걱정과 설레기 뒤섞인 마음을 끌어안은 채 드디어 비행기에 탔다. 부디 문제 없기를, 기어코 일어오기를, 큰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한 만큼 현지 수업을 꼭꼭 씹어 소화해 내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지금은 무섭고, 아직은 어려워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울 수 있도록 23살의 4개월이 살아온, 살ا갈 순간들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을 다짐하는 바다. 무탈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든 이 준 학교와, 응원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여름, 공항에서"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일본 후쿠오카 START UP CAFE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후쿠오카시가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START UP CAFE'가 위치한 Fukuoka Growth Next 건물과 START UP CAFE 내부 전경 등, 우리 대학의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된 학생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일본 SAP+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무사히 유학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재가 되도록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한편, 우리 대학은 SAP뿐만 아니라 어학연수부터 해외 탐방, 인턴십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동서대학교의 뛰어난 글로벌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자양분이자 디딤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SAP 와 더불어 ▲DAIP ▲동서아너소사이어티 ▲국제기술봉사단 ▲ASP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해외교환학생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세계적인 꿈을 기워보자.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학과장 인터뷰 – 이승희 웹툰학과 학과장



이승희 웹툰학과 학과장

Q. 학과의 진로와 전망이 궁금해요.

A. 2022학년 웹툰학과 신입생 면접 결과, 희망진로가 웹툰이 50%로 많은 학생들이 웹툰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웹툰 학과 출입 후 진로는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웹툰 편집 그리고 웹툰 분야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이너, 원화가, 디자일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웹툰작가로 활동하는 출입생 특강이나 야외 스케치, 누드크로키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샷짜, 웹툰학과는 수준 높은 청단교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니메이션 학과 게임학과 등 타과와의 교류를 통한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학과의 진로와 전망이 궁금해요.

A. 2022년도에 신설한 웹툰학과는 'K-웹툰'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설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8:1, 2023년도 수시 모집 7:1을 기록해 부·울·경 대학별 웹툰학과 경쟁률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요즘 뜨겁게 뜨고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웹툰학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2022년도에 신설한 웹툰학과는

'K-웹툰'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설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8:1, 2023년도 수시 모집 7:1을 기록해 부·울·경 대학별 웹툰학과 경쟁률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요즘 뜨겁게 뜨고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추천하는 만화나 웹툰이 있을까요?

A. 아직 소장을 하고 있는 저의 '최애' 만화책 <슬램덩크>와 <드래곤 볼>입니다. 슬램덩크는 많은 에피소드와 스포츠 만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감동이 있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볼은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과 코믹하고 다이나믹한 긴장감의 스토리 전개가 대단합니다. 한 작품 더 소개 드리자면 <아기공룡들리> 김수정 작가의 <입골개의 숨가락>입니다. 훈훈한 감동에 큰 비중을 두는 가족소재 만화로, 아직까지 가슴에 울림이 남아있는 거 보면 기억에 남는 따뜻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대학은 기술 교육소가 아니라 신념의 완성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돋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동서대학교 웹툰 학과를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게 맘껏 창작할 기회를 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지혜 수습기자

## 창업의 꿈을 더욱 크게

네트워킹데이 개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합 네트워킹데이

우리 대학과 동아대, 동주대, 부경대, 영남대 등 5개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한 '2022 부산 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합 네트워킹데이'가 지난 9월 29일 아바니 센터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창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6개사 대표와 멘토, 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창업특강을 비롯해 ▲IT·앱 개발 ▲투자상담·IR ▲비즈니스모델·마케팅 ▲경영컨설팅·자금조달 ▲기술컨설팅·R&D 등 5개 분야별 멘토링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창업특강과 경영컨설팅·자금조달 분야 멘토로 초대된 콜즈다이너스 강정수 대표는 20대 대학 시절에 창업 회사를 8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부산·경남 최초의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창업한 인물이다. 강 대표는 '창업가와 투자자'라는 주제로 투자자가 보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줬다.

한편, 우리 대학의 창업지원단에서는 1999년에 창업보육센터 개소 후, 2022년 8월 기준 2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Dream Engineering Valley와 벤처랩에 22개의 개별 창업보육실을 갖추고 있다.

부산에는 현재 17개 창업보육센터에 약 330개사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울산 2개(약 60개사) 창업보육센터와 더불어 부산·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BUBIA)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BUBIA는 네트워킹데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사업 수행,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한 해의 끝, 새로운 시작



• 책 제목 : 트렌드 코리아 2023  
• 책 저자 : 김난도  
• 출판사 : 미래의 책

별써 겉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끝나간다. 당신의 2022년은 어땠는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를 꼽자면 무엇인가? 트렌드코리아는 올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다가올 해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책으로, 매년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읽어 보게 됐다.

불황의 시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한다. 복고와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패션, 베스트셀러에는 헐링이나 재테크 서적이 오르고, 본능적이고 자극적인 상품이 뜨는 경향이 있다. 최근 관심된 소비트렌드는 불황기 소비의 전형을 보여 준다. RABBITJUMP, 올해를 표현하는 10개의 단어 모음이다.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슈머, 인엑스 관계, 뉴디멘드 전략, 디깅모먼트,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의 10가지 키워드로 다가온 2023년의 상황을 압축해 봤다. 2023년의 트렌드를 크게 경제, 사람, 기술로 나눴는데 첫째, 한국 사회의 방향

성 전환과 불황에 따른 시장변화, 물류,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마지막으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유통과 공간의 변화다.

인상 깊었던 장들을 몇 개 꼽아 보고 싶다. 첫 번째로는 “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 뉴디멘드 전략 과트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닦혀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됐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싶어질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바꾸고 싶을 때, 또는 새로운 상품을 사고 싶을 때다. 예전의 기업들은 소비자의 물건의 내구성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걸 ‘계획적 전부화’라고 하는데 전구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전구의 수명이 일부러 짧아지게 만든다는 것에 바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알파 세대에 관한 얘기다. 여러분은 알파 세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파 세대는 MZ세대의 다음 세대(A)로 태어날 때부터 보편화된 디지털기기와 함께 성장한 진정한 의미의 미디어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특징 중 10대 시장에 놀라움과 존경심을 느꼈다.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검색해 보니 직접 제작한 상품들이나 문구류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등 정말 상품 분야가 다양하고, 직접 만들거나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등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절망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키드프레너(여린이+사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일반화가 돼 있어 구글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성공사례를 볼 수 있다.

별써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다. 2023년에도 많은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리며 남은 2022년도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최지혜 수습기자

이제는 보편적 제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특정 소비자를 표적으로 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왜 이런 제품이 없을까?’하고 맞춤 주문 제작해 혼자만 사용할 수도 있던 상품을 대중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믿고 판매를 시작한 것이 대단하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생각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여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른다.’ 판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요즘 10대들이 창업하는 일이 윙윙 있다고 한다.

알파 세대에 관한 얘기다. 여러분은 알파 세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파 세대는 MZ세대의 다음 세대(A)로 태어날 때부터 보편화된 디지털기기와 함께 성장한 진정한 의미의 미디어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특징 중 10대 시장에 놀라움과 존경심을 느꼈다.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검색해 보니 직접 제작한 상품들이나 문구류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등 정말 상품 분야가 다양하고, 직접 만들거나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등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절망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키드프레너(여린이+사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일반화가 돼 있어 구글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성공사례를 볼 수 있다.

별써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다. 2023년에도 많은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리며 남은 2022년도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 영원히 기억 남는 배, 타이타닉



• 영화 제목 : 타이타닉  
• 영화 감독 : 제임스 카메론

만약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꿈의 장소에 가게 돼 인생이 바뀐다면 어떤 것 같나요?

때는 1912년, 모두가 꿈꾸는 배인 타이타닉호의 배경으로 한 영화 <타이타닉>에 대해 얘기하고 한다. 타이타닉에는 우연히 내기에 이겨 3등실 객실을 염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출발의 세상에 있던 로즈가 있다.

이 배의 객실에는 등급이 존재한다. 1등실에는 부와 권력을 지닌 이들이 타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3등실에는 내기에서 이겨 겨우 갑판을 차지했을 가진 것 하나 없이 내기와 운이 전부인 이들이 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로즈는 자살을 결심하는데, 이를 책이 우연히 발견해 제지에 성공한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로즈의 약혼자 칼에게 1등석 식당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된다.

1등석 이들은 식사 시간에도 권력과 돈의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책은 이를 앞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얘기하며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 숨쉴 수 있는 공기와 그림 그림 종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것은 없으며,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하루를 사는 게 행복하다는 책.

가진 자들의 대화에 질린 로즈에게 책은 너무 매력적이었고,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책과 함께 3등석 객실에 가 탑승객들과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사람 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혼자 칼에게 이 사실을 들려 1등실에 감금당하고, 책이 찾아와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그를 멀리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던 로즈는 책을 다시 찾아가게 되며, 둘은 갑판 위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로즈는 책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본인의 객실로 책을 초대해 나체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는데, 칼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만다. 칼은 책을 도둑으로 몰아보내기 위해 갑판 위에 감금시킨다.

어두운 밤이 오고 배 위의 항해사들은 잡담을 나누다가 정면에 있는 빙산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우현에 큰 구멍이 생기고 만다. 타이타닉이 두 동강으로 분리되며 침몰할 것이라 얘기하며 어서 탈출해야 한다는 말에 로즈는 바빠 움직이는데, 이들이 바빠 움직이는 외줄에도 3

등석 객실에 갑작스럽게 흘러온 물은 차기운 겨울 바다에 떨어지고, 책은 흐려지는 의식을 잡지 못한 채 떠나고 만다.

로즈는 꼭 살아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조 신호를 보내고, 또 다른 여객선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후 이름을 묻는 선원의 질문에 그녀는 죽은 책의 아래로 살겠다. 결심하며 로즈 도슨이라고 대답하고 영화는 끝이 난다.

<타이타닉>은 약 25년이 지난 영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고, 거기에 비극적인 사랑까지 담고 있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 같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겨워 이를 포기하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로즈와 하루하루 자주롭게 살던 책, 정반대의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의미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게 해 给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영화를 시청하고 나서도 여운에서 헤아나오지 못하고 이 배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 이 영화는 1900년대 사회 고위층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얘기도 담고 있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급에 따라 행동하는 고위층들의 태도와 생각에서 시대 상황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까, 죽음을 앞두고 만난 사랑과 사회 비판은 담은 이 영화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잊어버릴 것 같다가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영화다.

문수연 수습기자

## 가을 아침, 커다란 기쁨

### 민석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소개



▶ 독서의 계절, 가을

▷ 사진출처 - 미디어리터러시



▶ 작가의 만남 포스터

<강변역에서>

등 많은 유명 작품을 날간 정호승 시인이었다. 작년 제47회 작가와의 만남은 <지구 끝의 온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등의 작품으로 사랑 받은 김조업 작가가 조정됐다. 또 올해 1학기에는 <기우스 전자>의 곽백수 작가가, 2학기에는 <믿음에 대하여>의 박상영 작가가 초정됐다.

독서를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다.

책 판매량만 두고 보면 가을은 사계절 중 활동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폐쇄적인 날씨에 유난히 사색적이게 되는 가을은 책을 읽기로 안성맞춤인 계절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 # 독후감 공모전

2002년부터 운영 중인 장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제2회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 기간 내에 MYDEX로 제출이 가능하며, 민석도서관 추천 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작성하면 된다.

#### # 독서클럽

독서클럽은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화제의 신간이나 과거의 역작을 비롯해 다양한 책의 저자를 조정한 후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매 학기 1회 운영하며, 작가 조정 강연 및 사인회와 사진 촬영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제1회 조정 작가는 <우선화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정 도서, 혹은 자유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기에는 박상영 작자의 <믿음에 대하여>가 1차 공통 지정 도서였다. 2차, 3차는 조별로 진행됐다.

독서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은 민석도서관 특별 회원으로 등록되며, 개인별 책 3권과 학습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

#### # 미술 특강·투어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미술관에 간 CEO> 저자 김창대 교수가 진행하는 미술 특강과 민석도서관 소장 미술품 투어 프로그램이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일상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강렬한 창작적 쇼크를 받고 싶은 이들, 창조적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매 학기마다 전체 일정을 공지해 주니 관심 있는 이들은 신청해 보기를 바란다.

#### # 사람책 특강

올해부터 운영된 따끈따끈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한 사람(책)의 경험과 지식을 직접 들어보며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

로그램으로, 다양하고 풍족 있는 대학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

이전 정말 날이 쌀쌀해졌다. 생동하는 봄을 지나 초록으로 물든 싱그러운 여름이 지나고, 아무튼 마지막 해 사랑했던 여름이 나보내야 할 시기다. 눈 깜빡하면 금방 겨울이 온다. 짧은 가을을 여름을 그리워하거나 미련과 후회를 들여다보는 데에다 써 버리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가을은 그런 계절이다. 유난히 아침햇살이 빛이 부서지지 않고 면지 한 풀 없는 바람은 싱그럽게 느껴진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다. 꼭식이 무르익고 추수하는 계절, 우리도 내면의 열매를 성장시키고 수확하면 어떨까. 책과 함께 말이다.

가을이 다 가기 전, 도서관에 방문에 책 한 권을 들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 책을 읽어 보자. 책을 읽겠다는 다짐만으로도 풍성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규리 기자  
0rlarb11@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 2022 레지던시 프로젝트

- 기간 : 2022. 11. 05. (토) ~ 2022. 11. 20. (일)
- 장소 : F1963 석촌홀
- 주최 : 부산문화재단
- 입장료 : 무료



### 동화 속 발레 갈라 콘서트

- 기간 : 2022. 11. 08. (화)
-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 입장료 : 무료



###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 기간 : 2022. 11. 09.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무료



### 제14회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기간 : 2022. 11. 16. (수)
- 장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주최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입장료 : 무료



### 느슨한 작가회

- 기간 : 2022. 11. 19.(토) ~ 11. 27. (일) \* 월요일 휴관
- 장소 : 북구문화예술플랫폼 3층 민세갤러리
- 주최 : 북구문화예술플랫폼
- 입장료 : 무료



### 제3회 미술로 만나다

- 기간 : 2022. 11. 26. (토) ~ 2022. 12. 02. (금)
- 장소 : 문현아트센터 전시실
- 주최 : 문현아트센터
- 입장료 : 무료

# 감기, 얼마나 알고 있나?

## 환절기 대비 건강 관리법



▶감기 바이러스 전이



▶감기 증상



▶사진출처 -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요즘에야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일상이지만 예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기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지만 하더라도 감기 조심이라는 말이 친구들 혹은 지인들끼리 흔히 쓰는 인사말로 쓰일 정도로 감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감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감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걸려보기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기는 무언지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과거에는 감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조목조목 알아보고 감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 # 감기란 정확히 어떤 병일까?

우선 감기란 무엇일까? 감기는 단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증상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확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말에 따르면 감기를 2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 기계의 감염 증상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코와 목과 같은 호흡 기계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증상으로는 주로 근육통이나 두통 등 신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몸에 열이 나기도 하며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등 호흡 기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진통제, 해열제 등을 복용하거나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쉬운 바이러스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감기 환자의 비발을 통해 타인에게 쉽게 옮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감기 증상이 유사하

여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후각과 미각 기능의 상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PCR),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다.

## # 감기는 왜 치료약이 없을까?

우리는 흔히 감기를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하지만 이는 흔히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대응하는 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감기약'으로 통용된다. 종합 감기약의 경우 호흡기계 증상을 완화해주기 위한 활성화물질(주로 알레르기 약에 사용됨)을 함유하기도 하고, 두통과 목 아픔 등의 통증과, 발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로 유명한 진통제 성분) 성분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직접적 치료 방법이 아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증요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감기약은 치료제가

없는 것일까?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약 200여 가지로 너무 다양하여 이 모두를 대응하고 치료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주 변이하고 발전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을 만들기도 까다로운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독감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백신들이 높은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다.

## # 감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감기 예방에 있어 가장 핵심인 것은, 원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어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바이러스 보균자의 용품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이러스 예방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손

으로 가지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소幅度로 기리는 것과 같은 기침예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 다중 문화시설이나 공용 시설에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 # 과거에는 감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감기를 질환으로 규정한 것은 1950년대 이지만 인류가 감기와 함께 해온 것은 광장이 오래됐다. 감기를 가리키는 영어(Cold)는 16세기 경 사용되었는데 감기 증상이 추운 날씨에 겪는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진 감기는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대처했다. 지금부터 세계의 다양한 민간요법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매콤한 고춧가루를 넣은 풍나물국을 먹었다. 풍나물은 비타민A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고춧가루는 매운 성질로 맙을 나게 하여 체내 노폐물을 방출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침과 목감기와 같

은 경우 이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배를 갈아 마셔 증상을 완화 시키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특히 프랑스에서는 '뱅쇼'를 마시는데 이는 따뜻한 와인이라 뜻으로 와인에 계피와 과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자주 걸리고 증상이 비슷한 감기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와인으로 체온을 올려 감기를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은 치킨수프를 먹는다. 우리는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먹듯이 미국에서도 맙을 먹어 질병을 회복하는 것이다. 맙에는 면역을 도와주는 카르노신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따뜻하게 끓여 먹고 기운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 지금까지 알아본 감기와 예방 방법으로 이번 겨울에는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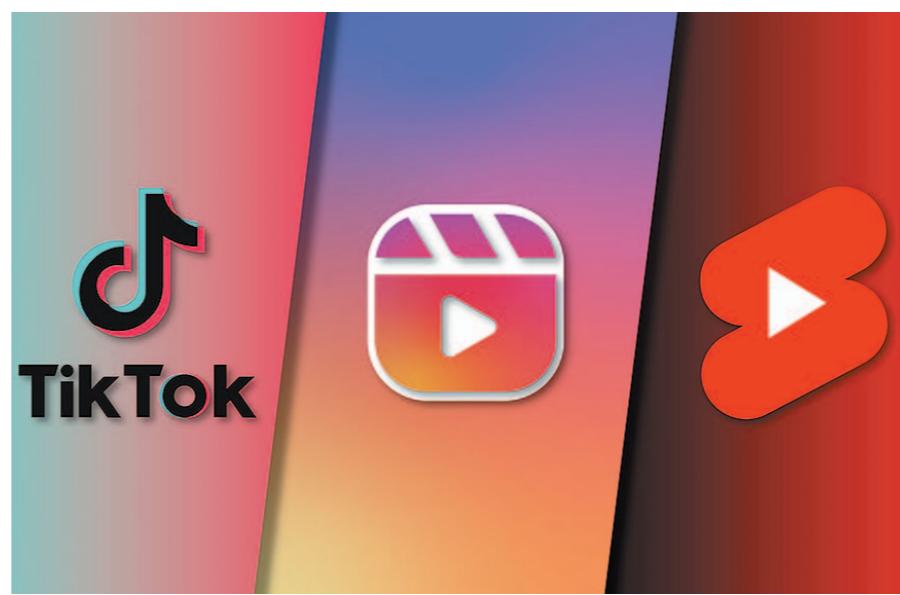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감기]  
두산백과 두피디아 - [대증요법]  
조선일보 - 대특별 감기 민간요법  
도 엽 수습기자

## 굵고 짧은 것이 대세!

### 15초면 영화 한 편 보는 세상



▶제로 투 챌린지



▶인기있는 3대 솟 품



▶'아무노래' 챌린지

▶사진출처 - T-Trend 티트렌드 유튜브 채널

20년 전 우리들을 상상해보라. 영화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하루를 꼬박 기다리거나 비디오방에서 차례를 기다려 드라마를 즐기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번역으로 수고 대신 손가락 몇 번 훑기는 것으로 콘텐츠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무엇이든 빨라진 세상과 그와 함께 빨라진 콘텐츠, 솟 품(Short Form)에 대해서 알아보자.

## # 솟 품(Short Form)이란?

Short Form이란, 짧은 형태를 뜻한다. 즉, '짧은 동영상'이란 뜻이다. 모바일 플랫폼 틱톡(TikTok)이 시작한 솟 품 콘텐츠는 평균 15~60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동영상이다.

## # 솟 품의 발달 배경

우선, 솟 품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수백 년 전, 농경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자자, ▲족자, ▲묘자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나뉘었다. 세부

적인 시간보다 절기 같은 긴 시간의 단위가 중요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짧게 조개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살아간다. 자연스레 시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됐고 이러한 현상은 문화 콘텐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어디서든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굳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아 있을 필요도,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갈 필요도 없어졌다. 지하철, 식당, 틈새 시간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미지의 세상 속으로 빠지면서도 여러 영상을 전달한다.

기존 TV, 영화 등 대중들에게는 가로로 긴 화면이 익숙하다. 특이하게도 솟 품 영상들의 형태는 세로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는 '주의 집중 시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뇌파 측정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

초로 줄어들었다. 금붕어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9초)보다 1초 짧은 수치다. 집중을 지속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대신보다 많은 자극을 원하도록 바뀌고 있다고 분석됐다.

숏 품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요점만 간략히 전달한다. 소비자들은 지루할 틈도 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스낵 문화(Snack Culture)'라고 부른다. 과자와 빵은 시간 내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이다. 시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해 1분의 시간만으로도 여러 영상을 전달한다.

# 솟 품의 인기 비결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는 '주의 집중 시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뇌파 측정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

초로 줄어들었다. 금붕어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9초)보다 1초 짧은 수치다. 집중을 지속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대신보다 많은 자극을 원하도록 바뀌고 있다고 분석됐다.

숏 품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요점만 간략히 전달한다. 소비자들은 지루할 틈도 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스낵 문화(Snack Culture)'라고 부른다. 과자와 빵은 시간 내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이다. 시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해 1분의 시간만으로도 여러 영상을 전달한다.

# 틱톡의 영향

2020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와 '제로투' 챌린지와 같은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챌린지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며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억지로 경품이나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틱톡을 유행시킨 차별화된 부분이다. 사람들은 자

신의 트렌디하고 멋진 순간을 어필할 수 있는 챌린지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비치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다. 틱톡은 다양한 해시태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든 챌린지에 참가하거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생산자 또한 될 수 있다.

숏 품의 대표주자인 틱톡은 2021년 구글을 밀어내고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틱톡이 인기를 끌며 경쟁사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각각 쇼츠와 릴스라는 솟 품 서비스를 출시한 상황이다.

기존 SNS 강자였던 인스타그램에 릴스 기능이 추가되며 솟 품 콘텐츠에 생소하던 사용자들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을 통해 노래들이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작년 빌보드 연간차트 1위, 역대 1주 집계 스트리밍 1위, 역대 최장기간 1위(19주)라는 대기록을 세운 'Lil Nas X'의

<Old Town Road> 또한, 틱톡의 챌린지로 급격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지코의 '아무노래' 역시 틱톡 챌린지로 유명해졌다.

MZ세대에게 솟 품이 인기를 이끄는 데, 많은 기업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미국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 보이스(The Voice)>는 새로운 시즌 방영을 알리며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국내의 기업 CU는 솟 품 드라마 방영을 시작한지 39일 만에 1억 뷔 달성이란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쇼츠는 전 입 장벽이 낮아 잠재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기 쉬워 마케팅 효과가 상당하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솟 품 콘텐츠.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와의 소통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자료출처 : 뉴시스 - 솟 품 전성시대 上, 콘텐츠 머니타이어이션 - '유튜브 쇼츠'에 맞는 콘텐츠는 따로 있다. 디지털 인사이트 - 지코 아무노래 챌린지는 왜 성공했을까? 백정호 수습기자



## 청년은 산을 오른다

화조풍월이라고 했던가. 붉은 단풍이 보이고 새 지저귐이 울리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암광산(嚴光山) 한가운데, 달빛은 없지만, 햇살이 등산로를 밝게 내리쬐고 있었다. 바다의 름을 들어 올리고 가슴마의 엔진이 과열될 때쯤 기분은 더욱 벅차오르리라. 낮지만 무준한 경사를 오르며,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바깥 활동보다는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만지는 것이 몇 배는 더 즐겁고 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인간이었다. 게으른 성격까지 더해 기본적인 육직임조차 귀찮은 심정이었다. 항상 활발하야 친구가 많아진단 아버지에게 나는 불효자였다. 가끔 하는 연락에서 미처 아들놈의 친구 얘기 한 번 듣지 못하고 수화기를 놓게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 나도 바뀌고 싶었다. 최근 활동량이 예전 같지 않음은 내가 가장 잘 느끼고 있는 바였다. 작은 움직임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느끼는 외증이었다.

“그거 내가 한 번 갔다 와 볼까?” 기삿거리로 고민하던 친구에게 선뜻 겁네 말이었다. 신을 오르고 글을 써줄 사람을 찾고 있는 친구의 말에 드디어 계기가 생겼다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모험가가 된 느낌으로 일정을 정하고 모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떠올릴 수 있는 등산은 다리에 쥐가 난 체 정상에서 친구들이 내려오길 바라는 추억밖에 없었으니, 이번에도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약속의 일정까지 지레 걸먹었다. 그러나 겁쟁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날밤은 지고 뜨거울 반복해 약속의 일정이 다가왔다.

걱정이 태산이었던 산오름은 기대가 앞섰던 뒷인지 예상외로 산뜻한 기분과 함께 시작됐다. 학교 건물을 빠져나오자 본격적인 산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물들을 지나 녹색 산림이 주위를 채웠고 올 청한 나무 아래 시멘트 바닥은 조화를 깨는 듯했지만 바람이 시원하여 그마저도 기분이 좋아졌다.

평坦한 코스가 지나고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비탈길이 등장했다. 물통불통한 돌들이 걸음을 방해하자 호흡도 까지고 배도 힘이 드는 것이 느껴졌다. 앞을 보면 돌길이 아직 한참인데 벌써 의욕이 사그라들려 했다. 그때, 무심코 열을 돌아본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높이 높았던 건물들이 이젠 내 아래에서 정수리를 보이며 빛없이 바닥을 메우고 있었다. 그 풍경은 산을 오르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해줬다.

다행히도 돌길은 걱정했던 것보단 짧았다. 이후로 모습을 드러낸 건 안내 표지판. 지금부터가 진짜 등산인데, 할 수 있겠으며 마치 나를 도발하는 모양새였다. 돌길에서의 풍경이 내 의지를 충만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장 정상을 향해 오르고 싶었다.

그렇게 말도 없이 산을 올랐다. 돌길과 달리 길이 평坦했기 때문에 편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계절은 바뀌며 가을의 향기를 보이고 있었다. 바람도

쌀쌀하리만치 낙너히 불어오고 이파마를 날리는 낙엽이 감성을 한층 자극했다. 벽에는 등산객들이 돌로 새긴 글도 볼 수 있다. 풋풋한 커플들이 하트를 가운데 두고 이름을 적어놨는가 하면, 보고 싶다면 여자 이름을 적어놓은 남자의 애환도 느낄 수 있다. 한자로 전고마비를 적어놓은 벽도 있었다. 가을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는 쉬는 것도 잊은 채 거칠게 숨을 내쉬며 산을 올랐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한껏 들뜬 마음과 함께 기대에 잔 걸음을으로 가슴을 들썩이며 황소마당 앞을 향했다. 마침내 다른 정상에는 비석이 하나 있었다. 한자로 암광산, 단순한 돌덩이였지만 그걸 본 순간 감정이 복발쳤다. 디어어 산을 올랐다. 무심코 열을 돌아본 풍경을 살피면서 내려온 청년은 지금 산의 맨 꼭대기에 서 있다. 누구보다 높고 주위 모두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산을 정복했다. 그 험난한 산 정상, 조리한 비석을 앞에 두고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내게는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듯했다.

한참 사진을 찍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며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사람은 움직여야 한다. 나에게 달린 두 다리는 강의실을 이동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닌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점프할 수도 있는 자랑스러운 냇석이었다.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이 없다. 여러분도 한 번쯤 산을 오르면 다리의 쓰임새를 깨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

## 죽비 소리

## 모두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행복해하길

임여빈(간호학과·1)

나는 어렸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감정을 나눠 편안함을 행복, 불편함을 불행이라 여겼던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불편한 상황을 자주 미주쳤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수업방식,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이 나에게는 벅차고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만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찾으려 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밝게 노력하고 학점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게으른 사람처럼 차이가 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척 살았다. 그럼 때마다 행복을 쫓아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며 간호학과에서 배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 방황할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아저씨를 발견했다.

발견하자마자 아저씨에게다가 의식을 확인하려 핸드폰의 플래시를 사용해 동공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는데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으며 무서움이 다가왔다.

나는 배우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실수에 대한 압박감에 망설이다가 신신을 차리고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겠다 싶어 아저씨의 쇠션 단추를 풀고 곧바로 상체의 모든 힘을 싣고 있는 힘

난 여리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제는 학점을 위해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지금 거치는 교과과정이 실무에서 큰 밀이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를 계기로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고 계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이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부디 세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행복이었다.

유난히 줄이 긴 버스 출입문 앞에서 2001년 부족했던 할아버지에게 드렸던 전 원과 봉사활동 중 만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의 질문에 모두 같은 7번의 대답들을 통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배려를 통한 웃음의 무한한 가치를 느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과거의 나처럼 무기력한 삶을 사는 학생과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행복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눴으면 한다. 당신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 이달의 명언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자신의 근면,  
하나는 타인의 어리석음.  
—라 브뤼에르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W. 블레이크

## 목회 칼럼



최민구 교수실장

## 한국 발전과 개신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된 근본적인 깨닭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구한말에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청지기 사상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조선 말로 성경이 번역돼 보급된 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무슨 상관일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서구는 꼭 구한말의 상황과 비슷하다. 종교개혁 이전과 비교하여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지식수준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스위스의 칼뱅과 독일의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 불어,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런 깨달은 글을 읽는 수준이 향상되면서 과학, 세이스피어와 밀턴 등의 문학이 꽃피울 수 있게 됐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한자 체제에 뿌여있던 사회였지만 선교사들이 한글 성서번역을 함으로 평민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게 기여했다.

청지기 사상은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켰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Maximilian Carl Emil Weber, 1864-1920)가 자신이 사는 도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한 내용을 쓴 책이다. 세 부류란 첫째 가톨릭 신자, 둘째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신자, 셋째 무종교인이었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그 세 부류를 관찰하니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나 무종교인보다 빨리 경제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다.

막스베버는 무엇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빨리 경제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인가가 궁금했다. 베버는 연구 끝에 개신교는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혼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이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데,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봤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성공적인 사례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 (1706-1790)이다.

프랭클린의 부모는 영국 청교도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유탤 벤저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직 외에는 중요한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됐다.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된 데에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부모가 체득시킨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그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균실히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세부류란 첫째가 정직, 둘째가 근면, 셋째가 절약, 넷째가 절제이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곧 종교개혁가 칼뱅과 루터로부터 나와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에 영향을 끼쳤는데, 첫째가 정직, 둘째가 근면, 셋째가 절약, 넷째가 절제이다.

마스베버는 무엇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빨리 경제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인가가 궁금했다. 베버는 연구 끝에 개신교는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혼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이를 3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첫째는 직업관, 둘째는 재물관, 셋째는 생활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업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 직업에서 제사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재물관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므로 현금하고 절약하며 사용하는 게 미망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 관점인 생활관과 함께 설명되는데, 생활 속에서 겸손하고 질서 있는 생활하니 낭비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 쌓이며 이를 재투자함으로 이익이 추가되고 자본이 축적돼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미·중 갈등의 속 한국의 위치, 미국금리 인상과 IMF의 도래 위기, 커지는 빈부격차, 깊어가는 국민 간 이념 갈등, 가계부채 위기, 도덕적 타락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는 하나님 이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 주셨다는 믿음 곧 청지기적 자세로 역사를 살아야 한다.

구한말 조선의 상황은 흡스가 말했던 ‘민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정치와 종교, 경제지도자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를 선도할 주역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 네컷만화

### 가을의 향기



나 다시 돌아갈래  
성과와 노력은 비례한다.  
작년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들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비록 결과가 나쁘더라도 좌절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 사설

### 밤하늘의 조명, 이제는 꺼야 할 때

불꽃놀이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축제를 한층 더 신나게 해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벽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지난 10월 8일,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했다. 이날 105만 명이 한강공원 일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도 시민들에게 낭만을 선사했다. 창문을 통해 불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지하철을 운행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불꽃놀이는 하늘의 새는 물론 육지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되며, 대기 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10월 8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천연의 날이다. 매년 5월, 10월 째 주 토요일을 세계 천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공교롭게도 올해 세계 천연의 날 슬로건은 ‘새들을 위해 불을 깨주세요’였다. 불꽃놀이가 주는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로마에서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인해 새 수백 마리가 폐죽음을 맞은 사건이 있었다. 새해 첫날인 1월, 로마 도심에 새 시체 수백구가 길바닥에 흩어진 채 발견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 ‘OIPA’는 이 폐죽

음의 원인으로 불꽃놀이를 주장했다. 큰 소음에 악한 새들은 불꽃놀이에 심리적, 육체적 위협을 크게 받는다. 불안과 공포로 인한 신체 증후를 보이며, 심박수를 급상한다. 공황 상태에 이른 새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장애물과 부딪혀 끝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만다.

여의도 불꽃축제의 경우 로마처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떨어진 새의 것들이 간혹 보였다. 이 축제는 강물 위에서 불꽃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체를 발견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마포대교까지 축제 범위가 확장돼 물세시지인 밤송이과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서울생태경관보전지역인 밤송에는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새매 등을 포함해 약 40여 종, 1만 마리의 새가 살고 있다. 여의도생태경관보전지역에도 불꽃세시지, 등 6종의 멸종위기종과 원앙 등 9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다.

위에서는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폭죽이 밭사될 때 나오는 날, 크롬 등 의 금속 성분으로 인해 오염물질과 유독

## 승리는 가장 끈기있게 노력하는 자에게 간다.



글·그림 김은아

## ■ 홍보대사 인터뷰–지현정 학생

## 23학번을 위한 힘이 되는 한마디

## 동서인의 응원



▶홍보대사 20학번 치위생학과 지현정 학생



Q. 현정 학생도 1학년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 현정 학생에게 '새내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제가 생각하는 새내기는 대학 생활 중 한 번밖에 없는 거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20살이 한 번인 것처럼 새내기도 단 한 번이니까요. 새내기도 딱 그 순간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걱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새내기 시절이라 후회없이 즐길 수 있는 낭만 있는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Q. 이제 막 동서대에 들어오는 새내기 학생들에게 홍보대사 외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해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국제기술봉사단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못 한 게 정말 아쉬웠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국제기술봉사단 모집공고를 보신다면 바로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SAP 추진해 드려요. SAP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참여도 있지만 동아리나 학과 학생회 활동같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Q. 홍보대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홍보대사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면서 일이 힘든 점은 없었는데 시험 기간이 겹치거나, 실습 때문에 병원 퇴근하고 일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 Q. 홍보대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저랑 다른 홍보대사 친구들이랑 같이 기획하고 활동하고 한 영상을 보고 재밌었다.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해 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블로그 포스팅하고 제 포스팅 덕에 정보를 얻어 간다고 말해 줄 때나 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저의 포스팅이라는 걸 알게 돼서 연락받을 때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 Q. 홍보대사를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A. 홍보대사를 통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어떤 일든 상관없이 저의 도움으로 일에 해결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수연 수습기자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홍보대사 아임동서 활동하고 있는 치위생학과 20학번 지현정입니다.

Q. 현재 홍보대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우리 학교 홍보대사 아임동서는 학우들을 위해 SNS에서 학교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임동서 블로그' 블로그 포스팅이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소식이나 학교 주변 맛집 등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포스팅한 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매년 입학식, 졸업식 학위수여식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에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도우미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나 잡지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학생 인터뷰–경찰행정학과 학과대표 김경표

## 우리만의 특별한 MT를 바라보며

## 경찰행정학과 학과대표 김경표 학생



▶김경표 학생



▶제9기 한마음순찰대 발대식

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MT를 통해 친목 도모와 단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강당에 모여 상품 걸고 잠자리랑 및 조별 게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이번 MT를 계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중지했던 MT를 준비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오랜만의 MT인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이번 MT를 계획하면서 본인이 1학년 때 갔던 MT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A. 이번 MT는 18학년 때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갔던 MT는 순경체제에 최종합격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곳인 중앙경찰학교를 견학한 후 가까운 수련관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하며 1박2일을 보냈습니다.

Q. 바쁜 학교 일정 와중에도 MT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순조롭습니다. MT를 대비하여 학생회는 방학 동안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여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MT가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됨으로써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끔 했으며 아직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준비하며 다 같이 즐거운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Q. 이번 MT는 1학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경찰행정학과는 타 학과와 달리 각 학년별로 학과 관련 진로방향성에 맞는 장소로 견학을 갑니다. 1학년은 중앙경찰

학교, 2학년은 과학수사연구원, 3학년은 부산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그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의 동기부여를 얻는 등 경찰 위주로써 경찰행정학과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Q. MT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1학년 학생들은 MT가 처음이고 2, 3학년 동기, 선배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만에 가는 MT인 만큼 학교를 다니며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풀 수 있도록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학년과 선배 간의 교류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MT를 계기로 서로 얼굴도 익히며 좋은 선배와 관계 맺어서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Q. 2년 만에 진행되는 MT인 만큼 많은 학우들이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었나요?

A. 일 년에 몇 번 없는 단합의 장소인 만큼 선배 간의 즐거운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MT를 가본 적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MT를 더욱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2, 3, 4학년 선배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다거나 활동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 중 대다수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MT가 두 번째이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 수습기자

##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자메 티소트의《만나의 수집》

▷ 사진출처 - 위키백과

## # 식사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기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식사'라 하며 이는 '끼니로' 음식을 먹으니라는 뜻을 지고 있다. 그러나 식사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더불어 자기 삶의 일부를 나누게 된다. 식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 식사와 가족

가족을 칭하는 또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는 표현이 있다. 한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곧 가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만큼 식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다.

## # 유대인들의 식사

유대인들은 식사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

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파스카와 같이 특별한 식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즐거움과 유쾌함을 상징했다(잠언 15, 15).

한편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언제나 식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식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도 했다(마태 9, 913).

## # 성경 속 식사

성경에서도 식사는 특별한 행위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을 먹이셨다. 초대교회에서도 식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식사는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다. 또한 예수님이 봄과 피를 나누어 먹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되었고, 예수님이 통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리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 (탈출 16, 14-1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 탈출기에 나오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 탈출기에 나오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 2, 467).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에는 영양 섭취에서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징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물론 비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식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그 음식을 위해 수고해 준 모든 존재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성제성사이고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주님과 하나님과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 # 하나님 사랑 사기시킨 증거물로 성체의 예표, 만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리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 (탈출 16, 14-15).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음식이었다(탈출 16장).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하얀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굶어도 양식으로 사용했다.

성경에 따르면 만나는 빵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탈출 16, 31).

## # 하늘에 내려준 음식 '만나'

태양이 떠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광야의 모래 위에서 '흰 서리 같은 것' (탈출 16, 14)이 밝게졌다. "이슬이 결한 뒤에 보니, 잘기가 빵에 내린 서리처럼 잔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린 것"이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야?'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탈출 16, 14-15).

만나는 광야를 뒤덮는 만은 결정화된 날암으로 돼 있는데, 헛볕에 녹는다. 그 날암들을 두드리거나 찔으면 구울 수 있게 되는데, 끌어올 때마다 만나와 성경의 만나와 비슷하다.

만나는 광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있다. 만나는 빵을 양식으로써 생명과 연관돼 있으며, 당신 백성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풀어보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자연적인 만나를 기적적으로 제공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일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선사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연적인 빵을 많이 하시고 나눠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 백성에게 시내의 만나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다.

사도 바오로는 이 만나가 성체의 예표라고 했다(1코린 10장).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비유적으로 만나를 들어 말씀하셨다(요한 6장).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로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고 선언하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 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 58). 그리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거행되는 성전례 안에 도 이와 같은 만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 김선희 수습기자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부산지역 대학생을 위한 한국거래소, CEO 멘토링
- 접수기간 : ~2022. 11. 8. (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멘토링/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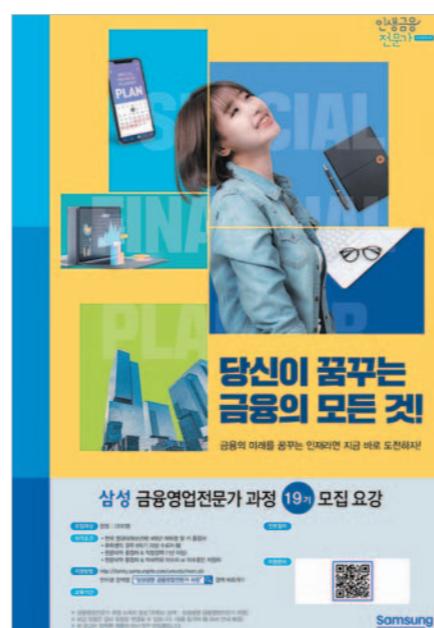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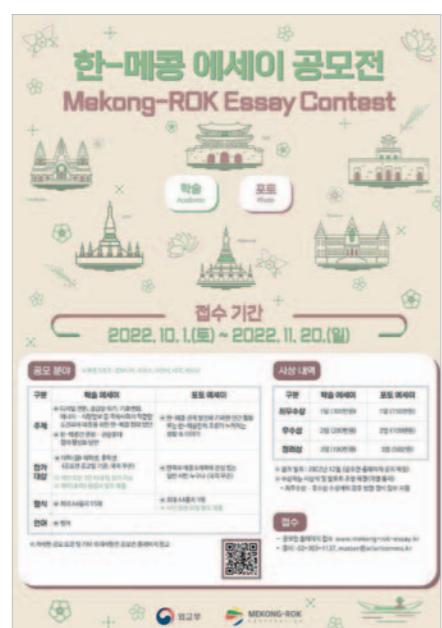
- 퍼포먼스 마케터 직무체험
- 접수기간 : ~2022. 11. 09. (수)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인턴십

-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2. 11. 11. (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기획

- 해외파견 WFK 청년봉사단 43기 단원 모집
- 접수기간 : ~2022. 11. 13. (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봉사/대외활동

- 2022 삼성금융네트웍스 금융아카데미 SFA
- 접수기간 : ~2022. 11. 18. (금)
- 응모대상 : 대학교 4학년 및 졸업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

- 제4회 해양경찰청 노래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1. 20. (일)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공모전



- 한-메콩 에세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1. 20. (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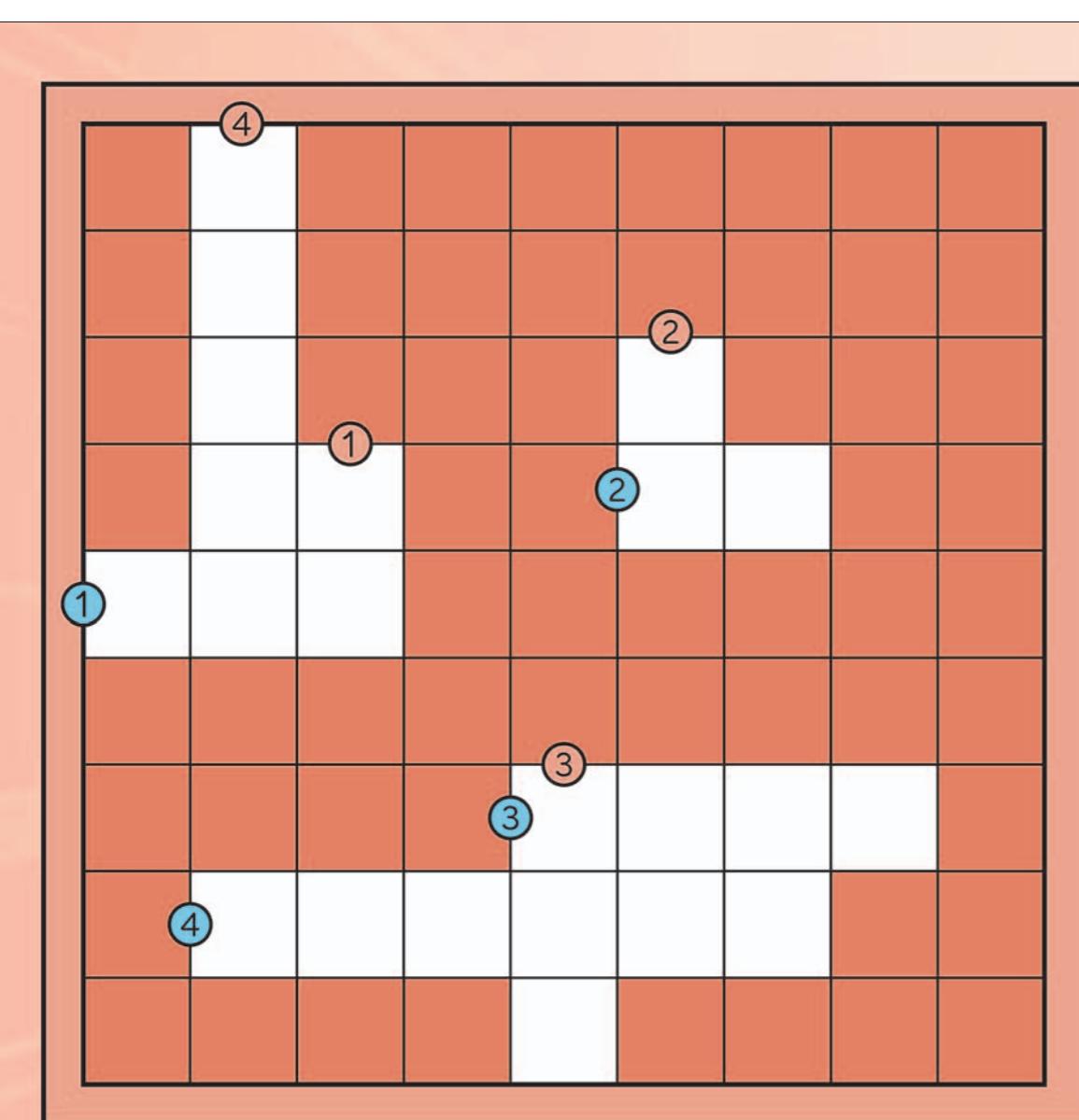
- 페브리즈 광고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1. 20. (일)
- 응모대상 : 광고, 아이디어, 미디어
- 공모분야 : 광고, 아이디어, 미디어

- 2022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 접수기간 : ~2022. 11. 21. (월)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

- 삼성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19기 모집
- 접수기간 : ~2022. 11. 25. (금)
- 응모대상 : 대학교 4학년 및 졸업생
- 공모분야 : 멘토링/대외활동

- 2022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1. 28. (월)
- 응모대상 : 부산 기장군 거주자
- 공모분야 : 미디어, 공모전

- 다이와 대학생 디자인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2. 13. (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 디자인



##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낱말퍼즐

### 가로

-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고도 하며, 일교차가 심해진다
- 와인에 계피와 과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
- 우리 대학 출보대사를 칭하는 단어
- v603팀이 최우수상을 받은 대회 (2022 부산 000000 경진대회)

### 세로

- 여러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증상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
- 유튜브 채널의 속 품을 일컫는 말
- 한 단위로 다른어지는 데이터의 집합
-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암송대회에서 암송하는 것

### 참여방법

- 낱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은 후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11월 29일까지 낱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11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